

종교교육학연구 제10권. pp. 199~21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고구려 출신의 승랑을 상송한 중국삼론종 제2기의 가풍[1]

-제2조 승전과 제3조 법랑을 중심으로-

박 선 영
(동국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의 관점에서 불교승려들의 중국유학의 실태를 검토하여, 이 구법유학의 한국교육사 및 한·중 사이의 정치사적 내지 문화교류사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고구려의 승랑은 중국에 구법유학을 한 선구자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의 연구는, 고구려 출신 승랑에 연원한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초조인 승랑의 계승자인 승전과 그의 수제자 법랑을 중심으로, 제2기의 학풍 내지 가풍의 일면을 확인하고, 법랑이 승전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했다. 또한 승전에게는 학문적인 측면의 해박함과 선적인 차원의 실천적 수행이라는 양면을 지니고 있었던 바, 법랑은 승전의 문하에서 승전의 학문을 대표하는 계승자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승전과 법랑의 만남과, 진(陳) 무제의 칙을 받고 황도(皇都)의 홍황사에서 25년의 장기간에 걸쳐 행한 삼론의 강론이 승랑을 연원으로 하는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차지하는 의의 및 그 교육학적 의미도 어느 정도 밝혔다.

핵심 주제어: 고삼론(古三論), 신삼론(新三論), 전공사우(詮公四友), 승랑의 학풍, 중관불교학, 승전(僧詮)의 학문과 수행, 법랑(法朗)의 학풍과 수행.

The Scholastic Tradition of the Second Period of the Sān-lún School in China Succeed Sēng-làng of Kokuryo

-Focusing on the Second Patriarch Sēng-quán and the Third Patriarch Fá-lang-

Park, Sun Young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is one of the series of studies examining Korean Monk's situation of the studying in China from the viewpoint of history of Korean Education. This study also is concerned with the meaning of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and that of the history of politics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n Peninsula and China.

Sēng-lǎng(僧朗) from Kokuryo is one of the precursors who have studied in China for pursuing Buddha Dharma. This research tried to clarify a certain aspect of scholastic tradition of the Second Period of History of Sān-lún and also of the Sān-lún School of China which origins from Sēng-lǎng of Kokuryo. By examining Sēng-lǎng and his disciple's educational systems, this study will make clear that Fá-lǎng(法朗) is a successor of Sēng-quán(僧詮), who is also one of representatives of his school who has aspects both of the erudite in academic system and of practical exercises of dimension of Chán(禪).

This study also tried to examine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lecture of Sān-lún(三論) offered by Fá-lǎng(法朗) in Xīng-huáng-sì Temple(興皇寺) of capital city for 25 years of long term by royal command of Chén-wǔ-dì(陳武帝) in the history of Academic system of Sān-lún(三論), history of Sān-lún(三論) Order, and also the meaning of the encounter between Sēng-quán(僧詮) and Fá-lǎng(法朗).

Key words: Gǔ-sān-lùn(古三論), Xīn-Sān-lùn(新三論), Quán-gōng-si-yǒu(詮公四友), Scholastic Custom of Sēng-lǎng(僧朗), The Madhyamika Studies (中觀學), The Study and Practice of Sēng-quán(僧詮), The Academic tradition and Practice of Fá-lǎng(法朗).

I. 연구의 성격

한국교육사에서 유교와 불교의 교육은 중국에의 유학과 한국 내에서의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에서 불교승려들의 중국에의 구법유학(求法留學) 실

태를 각 시대별로 검토할 필요에서 계획된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다. 그 가운데 한국불교사에서 최초로 중국유학을 한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고구려의 승량(僧朗)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고구려 승량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사승관계”¹⁾와,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량시대 섭산 서하사의 가풍”²⁾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상기(上記)한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량시대 섭산 서하사의 가풍”에 이은 일련의 논문이다. 승량을 연원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량의 스승인 법도(法度)와 승량을 포함한 그의 사형제(師兄弟)들의 시대는 제1기에 속하는 바, 이들은 전반적으로 청고(淸苦), 고절(苦節), 고고(孤高)라는 용어에 상응하는 고결한 인품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량의 스승인 법도가 머물고 있던 섭산(攝山)의 서하사(棲霞寺)에 귀의한 재가의 불자들을 보면, 모두 당대의 저명한 은일(隱逸)의 고사(高士)이거나 당시의 지성계에서 명망 높은 여러 학자나 왕들이었다.³⁾

잘 알려져 있듯이, 삼론이 중국에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나집(羅什) 즉,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23)이 강북의 장안에서 삼론을 포함하여 방대한 대승경론들을 본격적으로 번역하면서 많은 학승들에게 강론함에 의한 것이었다.⁴⁾ 장안을 중심으로 한 이 시기의 삼론학을 흔히 고삼론(古三論)이라고 한다. 한편, 승량은 대체로 5-6세기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며⁵⁾, 그의 중국에서의 유학(留學)은 주로 북조의 장안 지역에서 삼론과 화엄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수학한 뒤에 강남의 남조에 와서 신삼론(新三論)을 천명했다. 그리하여, 승량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초조인 승량의 신삼론(新三論) 학설은 제2조인 승전(僧詮)에 계승되었으며, 제3조 법랑(法朗)을 거쳐 제4조인 길장(吉藏)에게서 대성하여 하나의 독립된 중국의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성립을 보게 된다.

따라서, 승전과 그 제자들의 시대는 중국의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역사로 보면 제2기에 속한다. 이 연구에서는 승전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학풍과 수행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점에서 승량 이래의 전통을 계승했으며, 어떠한 점에서 새로운 면모와 성격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1) 朴先榮, 「고구려 僧朗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師承관계」, 『田雲德總務院長華甲紀念 佛教學論叢』, 1999.

2) 박선영,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량시대 섭산 서하사의 가풍, 《宗教教育學研究》9, (서울 :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3) 같은 글.

4) 朴先榮, 「고구려 僧朗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師承관계」, 『田雲德總務院長華甲紀念 佛教學論叢』, 1999, 703-709쪽.

5) 위의 글, 697-699쪽.

확인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밝히려 한다. 이 연구에서의 방법은 사료들의 해석학적 검토를 통해 추구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승들의 전기에 나타난 문면(文面)들을 역사적 상황과 승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간의 관계 및 이들의 당시 불교계의 인사들과의 관계들을 각기의 처한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재해석을 기하여 음미하는 방법을 통해 추구할 것이다. 그것도,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일차적으로 신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제2조인 승전과 이 승전문화의 법랑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할 것이다. 물론 승전문화에는 4철(哲)이라 할 법랑(法朗), 혜포(慧布), 지변(智辯), 혜용(慧勇) 등 이른바 전공사우(詮公四友)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법랑은 섭산(攝山) 서하사(棲霞寺)의 고구려 출신 승랑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에서 뒷날 제3조로 추앙되는 고승이다. 따라서 중국의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제2기의 학풍과 실천적 수행을 중심으로 한 가풍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2조인 승전과 법랑을 우선적으로 검토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법랑 이외의 승전 제자들은 다음의 기회를 기약하고자 한다.

II. 제2조 승전에게 있어서 학문과 수행의 경향

중국 신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제2조인 승전(僧詮)은 초조(初祖)인 승랑으로부터 무얼을 학습했을까. 승랑의 스승인 「법도전(法度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 법도에게 제자 승랑이 있어 선사(先師)의 뒤를 이어 다시 산사를 통솔하였다. 승랑은 본래 요동인으로 성품의 뉘뉘이가 널리 배우고 사력(思力) 또한 해박하였다. 무릇 경과 율을 모두 다 능히 강설했으나, 화엄과 삼론을 제일의 명가(名家)로 하였다⁶⁾.

라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승랑의 학풍은 폭넓게 여러 경율(經律)에 통했으나, 그 중심은 삼론과 『화엄경』을 중심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승랑의 학문은 그의 학문적 후계자인 승전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론과 화엄은 어떠한 교의를 지니고 있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대승불교사에서 불세출의 중요한 인물인 용수(龍樹)는 불타의 연기관(緣起觀)에 입각한 무아의 즉 공(空)의 사상에 철저화를 기하여,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불교학(中觀佛敎學)을 체계화하였다. 삼론은 이 중관불교

6) 「高僧傳」 8, 釋法度, 『大正藏』 50, 380쪽 하단, “度有僧朗 繼踵先師 復綱山寺 朗本遼東人 爲性廣學 思力該普 凡厥經律 皆能講說 華嚴三論 最爲命家”(여기에서 『大正藏經』은 『大正新修大藏經』을 가리킨다. 앞으로도 같다).

의 기본논서로서, 용수의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및 그의 제자인 제바(提婆)의 『백론(百論)』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무아도 무아이여야 한다는 교의를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空)도 다시 공(空)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론은, 무아의 즉 공(空)의 사상에 철저화를 기하면서 방대한 『반야경』 계통의 불서들을 깊이 탐구하고 체험한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저술로, 반야공관의 입장에서 일체의 그릇된 견해인 소위 회론(戲論)을 타파하고 진실한 중도의 정견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방대한 『반야경』 계통의 불경과 삼론 및 용수가 저술한 『대품반야경』에 대한 해석서 100권의 방대한 『대지도론(大智度論)』⁷⁾은 삼론학에 있어서 필독의 경론이라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화엄은 『화엄경』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화엄경』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화엄종의 교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승량은 아직 화엄종이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이전의 인물이다. 따라서 승량이 강설하였다고 하는 화엄은 『화엄경』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중국불교사에서 대승경전의 번역은 구마라집 이전에 이미 후한의 지루가참(支婁迦讖)이나 오(吳)의 지겸(支謙) 또는 서진(西晉)의 축법호(竺法護) 등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반야와 정토의 계통은 크게 유행되고 있었다. 더욱이 구마라집에 의해서는 번역 또는 재역(再譯)을 통해 전에 없이 정확하고도 가다듬어진 모습으로 광범하고도 방대한 분량의 대승경전이 중국에 전역(傳譯)되었다. 뿐만 아니라, 60권의 『화엄경』은 동진(東晉)시대 이미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에 의해 번역되어 있었다.⁸⁾ 또 『화엄경』의 교의는 끝없이 거듭되는 무진연기(無盡緣起)의 세계를 바탕으로 대승보살도의 수행과정을 52단계[位]로 설정하여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화엄경』 가운데 마지막의 「입법계품(入法界品)」에서는 보현보살의 실천적 행원(行願)을 깨우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승량은 구마라집에 의해 중국에 전역(傳譯)된 대승경전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역사적 시점에 있었다. 위의 인용문 [1]에서 그의 스승인 법도의 전기에 기록된 승량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인용했던 바, 승량은 그러한 섭렵을 실제로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떠한 점에서 그럴까. 앞서의 인용문 [1]의 내용에, 승량이 널리 배우고 사력(思力) 또한 해박하였으며 무릇 경과 율을 모두 다 능히 강설했으나 화엄과 삼론을 중심으로 했다는 내용은 바로 그의 이러한 점에 관한 증언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승량의 이러한 학풍은 그의 계승자인 승전에게도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측은 승전이 그의 제자들에게 교수한 경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제2조인 승전의 문

7) 이 『대지도론』은 『지도론(智度論)』 또는 『지론(智論)』이라고도 하는 바, 삼론학에서는 삼론과 이 『지도론』을 합하여 사론(四論)이라고 한다.

8) 朴先榮, 앞의 글, 704-708쪽.

하에서는 사구(四句)의 법랑(法朗), 득의(得意)의 혜포(慧布), 영어(領語)의 지변(智辯), 문장의 혜용(慧勇)⁹⁾, 또는 홍황사의 엮드린 호랑이 법랑, 서하사 득의의 혜포, 장간사 영어의 지변, 선중사 문장의 혜용이라고 불렀다고 하는¹⁰⁾ 소위 전공사우(詮公四友), 즉 승전 문하의 4철(哲)이라 할 탁월한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제삼조인 법랑은 다른 3인의 사형제(師兄弟)들과 함께 삼론과 『대지도론』을 합한 이른바 사론(四論) 및 『화엄경』, 『대품반야경』을 승전에게서 수학했다.¹¹⁾ 승전의 이와 같은 학문적 경향은 앞서의 인용문 [1]에서 확인되듯이, 승랑 이래의 전통이라 하겠다. 한편, 삼론학 내지 삼론종의 소의경전(所依經論)은 방대한 『반야경』, 그리고 삼론과 『대지도론』을 합한 사론(四論)이다. 이제 승전(僧詮)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깨우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검토야말로 이 곳에서의 연구주제에 유효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승전의 계승자인 법랑을 포함한 소위 전공사우(詮公四友)들이 승전에게 수학한 경론을 보면, 승전의 학문은 매우 넓고 깊다고 하겠다. 전공사우의 하나인 혜포의 전기에서는 “섭산(攝山=僧朗)을 계승한 지관사(止觀寺)의 승전법사는 대승의 바다이고 큰 산으로서 그 명성과 칭찬을 멀리서 듣고 곧 가서 이를 따라 삼론을 청문(聽聞)했다. 학도들은 수백으로 일기(一期)에 우뚝 향상하여 밝게 청현(淸玄)에 이르렀고, 미묘하게 논지를 안 자들은 다 함께 더할 것이 없었다”¹²⁾고 한다. 재언(再言)하거니와, 제2조인 승전은 승랑의 학풍을 계승하여 넓고 깊다. 그러나 승전의 특색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미 선행연구에 의해 잘 밝혀져 있거니와¹³⁾, 제2조 승전은 광범하고 깊은 학문적인 경향과 더불어 선적(禪的)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승전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나 깨우침 또는 행태는 그의 이러한 면을 확인하게 한다.

[2]: 처음에 섭산(攝山)의 승전은 학업을 승랑에게 받았고, “현지(玄旨)의 분명한 바는 오직 중관(中觀)에 있다. 스스로 마음을 모아 이치를 분석치 않는다면 어찌 이 청언(淸言)에 계합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 자취를 그윽한 숲 속에 머물러 선미(禪味)를 상득(相得)했다. 뒤에 4공(公)이 가서 삼업(三業)을 이어 받았다. 이에, 처음에는 간섭하여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자 부연하였다. 그러므로 전공(詮公)은 명하기를 “이

9) 「續高僧傳」 7, 釋慧布, 『大正藏』 50, 480쪽 하단, “時人爲之語曰 詮公四友 所謂 四句朗 領語辯 文章勇 得意布”

10) 「法華玄義釋籤」 19, 『大正藏』 33, 951쪽 상단, “詮有學士 四人入室 時人語曰 興皇伏虎朗 栖霞得意布 長干領語辯 禪衆文章勇”

11) 「續高僧傳」 7, 釋法朗, 『大正藏』 50, 477쪽 중단, “乃於此山 止觀寺僧詮法師 滄受智度中百十二門論 並花嚴大品等經”

12) 「續高僧傳」 7, 釋慧布, 『大正藏』 50, 480쪽 하단, “承攝山止觀寺僧詮法師 大乘海嶽 聲譽遠聞 乃往從之聽聞三論 學徒數百 翹楚一期 至於洞達淸玄 妙知論旨者 皆無與尙”

13) 平井俊榮, 『中國般若思想史研究 - 吉藏と三論學派 -』, (東京: 春秋社, 1976), 273-286쪽.

법은 정묘(精妙)하다. 식자(識者)라야 능히 행할 수 있다. 방을 나가 함부로 열어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아견(我見)을 헤아리는 자에게는 이 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깊히 법을 즐기는 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로 약 때문에 병이 있기도 한다. 헛되이 행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법랑 등은 그 뜻을 받들어 감히 말하거나 뒤섞지 못했다.¹⁴⁾

잘 알려져 있듯이, 삼론학은 대승불교의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승불교의 공관(空觀)을 천명함에 있어서 그 어떤 학파나 종파보다도 철저한 논리적 치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특히 대승불교의 근본목적은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 성불하고 다른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도록 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실천에는 사념(思念)을 중지하는 지(止: 定)와 밝게 관조하는 관(觀: 慧)의 동시통합적인 수행(修行)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만약 이러한 수행이 결여된다면, 이는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관(止觀) 즉 정혜(定慧)의 수행이 없다면 진정한 불교인은 될 수 없다. 승전은 바로 이 점을 잘 꿰뚫어 철저히 제자들에게 깨우쳤다. 바로 자취를 그윽한 숲 속에 머물러 선미(禪味)를 상득(相得)했다고도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선(禪)을 수행하여 선미(禪味)를 체득하는가 하면, 지관(止觀)의 수행, 즉 선의 수행에서는 교의나 논리 또는 이론이 때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깊히 법을 즐기는 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로 약 때문에 병이 있기도 한다. 헛되이 행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의 깨우침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그의 학풍 내지 수행관(修行觀)이라고 하겠다.

III. 제3조인 법랑의 학풍과 수행의 경향

고구려 출신 승랑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신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에서 제2조인 승전 문하의 대표적인 제자는, 이미 언급되었듯이, 법랑, 혜포, 지변, 혜용을 흔히 전공사우(詮公四友)라고 했는 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승전 문하의 4철(哲)”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섭산(攝山)의 서하사(棲霞寺)¹⁵⁾의 승랑(僧朗)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14) 「續高僧傳」 7, 釋法朗, 『大正藏』 50, 477쪽 하단, “初攝山僧詮 受業朗公 玄旨所明 惟存中觀 自非心會析理 何能契此清言 而頓述幽林 禪味相得 及後四公往赴 三業資承 爰初誓不涉言 及久乃爲敷演 故僧詮命曰 此法精妙 識者能行 無使出房 輒有開示 故經云 計我見者 莫說此經 深樂法者 不爲多說 良由藥病有 以不可徒行 朗等奉旨 無敢言厝”.

15) 이 棲霞寺는 때로는 栖霞寺로도 표기되고 있다.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뒷날 제3조로 추앙되는 법랑(法朗, 507-581)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전기를 “1. 가계와 청소년시절”, “2. 출가의 동기와 불교의 수학 과정”, “3. 승전과의 만남과 흥황사에서의 강론”으로 나누어 논구할 것이다.

1. 가계와 청소년시절

그의 가계와 청소년 시절은 그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A]: 석법랑(釋法朗)은 속성(俗姓)은 주(周)씨이고, 패현(沛縣)의 서주(徐州) 패군(沛郡)의 패(沛) 사람이다. 조부 봉숙(奉叔)은 제(齊)의 급사황문시랑(給事黃門侍郎), 청주자사(青州刺史)였고 부친 신귀(神歸)는 양(梁)의 원외산기상시(員外散騎常侍)로 패군(沛郡)의 태수였다. 법랑이 임신될 때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유(劉)씨가 꿈에 신인(神人)이 누전(樓殿)을 타고 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꿈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이 몸이 빈 것 같았다. 이미 깨고 나니 사체(四體)가 가볍고 비어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오신(五辛)의 잡미(雜味)는 이를 계기로 다 끊었다”고 했다.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永久齒)가 나게 되자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탁출(卓出)했다. 효경(孝敬)을 아름답게 갖추었고 지조가 곧게 섰다. 집은 6군(郡)의 인걸[雄]이며, 기(氣)는 3변(邊)을 덮었다. 소시(少時)에 군역(軍旅)을 익히고 일찍이 행진(行陣)을 거쳐 검약으로 몸을 다스렸으며, 총애와 모욕에 움직이는 일이 없었다. 잠시, 가절영원장군(假節寧遠將軍) 서자언(徐子彦)이 북벌하여 문에 장극(長戟)을 설치하고 큰 나무에 앉아서 쉬었다. (법랑은) 생각해 말하기를, “무기는 흉기이고 몸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육심의 바다와 사악함의 수풀에서 어찌 깨달은 자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는 바, 이는 21세 때의 일이었다.¹⁶⁾

위의 인용문 [3-A]에서, 제3조인 흥황사(興皇寺)의 법랑은 대대로 관직을 지낸 명문가의 출신이다. “집은 6군(郡)의 인걸[雄]이며, 기(氣)는 3변(邊)을 덮었다”고 할 정도이었다. 법랑은 범상하지 않은 태몽과 이 태몽을 낳 뒤에도 태몽에서와 동일한 체험을 하면서, 5신채(辛菜)를 끊는 모친의 특별한 태교의 덕분이랄까,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永久齒)가 나게 되자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탁출(卓出)했다. 효경(孝敬)을 아름답게 갖추었고 지조가 곧게 섰다. 명문가의 남다른 가풍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교육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16) 「續高僧傳」 7, 釋法朗, 『大正藏』 50, 477쪽 중단-하단, “釋法朗 俗姓周氏 徐州沛郡沛人也 祖奉叔 齊給事黃門侍郎 青州刺史 父神歸 梁員外散騎常侍 沛郡太守 朗託生之始 母曰 劉氏夢見 神人乘樓殿入懷 夢中如言 身與空等 既而覺寤 四體輕虛 有異恒日 五辛雜味 因此悉斷 爰在韶胤 卓出凡童 孝敬純備 志操貞立 家雄六郡 氣蓋三邊 少習軍旅 早經行陣 儉約治身 寵辱無能移也 俄而假節寧遠將軍徐子彦北伐 門設長戟 坐休大樹 (法朗) 惟曰 兵者凶器 身曰苦因 慾海邪林 安能覺者 年二十一”

한편, 법랑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는 남조와 북조가 각각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암암리에 대치상태에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남북에는 각각 크고 작은 반란이나 찬탈 또는 외침이 있었다. 위의 인용문 [3-A]에는 법랑이 젊어서 군인의 길을 지망했던 것을 전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이미 군사훈련의 경험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을 통해 검약을 익혀 자기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담대하고 대범한 성정을 갖추기도 한다. 위의 인용문 [3-A]에서 “소시(少時)에 군여(軍旅)를 익히고 일찍이 행진(行陣)을 거쳐 검약으로 몸을 다스렸으며, 총애와 모욕에 움직이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점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이러한 지향 내지 의지를 지니게 된 데에는 위에서 언급된 가계적 배경의 영향과 역사적인 사회적 풍조가 작용했다고 추측된다. 잠시 북벌에 참가한다. 그러나, 이 북벌에의 참가는 그에게 커다란 불교적 회심의 계기가 되었다. “무기는 흉기이고 몸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욕심의 바다와 사악함의 수풀에서 어찌 깨달은 자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개안이 바로 그것이다. 21세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소시(少時)의 군사훈련 경험과 북벌참가를 고려할 때, 그가 무가적(武家的)인, 즉 호전적이면서도 담대한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법랑의 이러한 점은 앞으로 다른 면에서도 확인될 것이다.

한편, 그의 탄생에 얽힌 꿈은 그의 출생 이후의 생애에 대한 암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위의 인용문 [3-A]에서 임신이 시작될 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유(劉)씨가 꿈에 신인(神人)이 누전(樓殿)을 타고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꿈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이 몸이 빈 것 같았다. 이미 깨고 나니 사체(四體)가 가볍고 비어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 일독(一讀)했을 때, 얼핏 여기에서 유(劉)씨가, 보기에 따라서는, 법랑의 모친이 아닌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법랑이 임신될 때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유(劉)씨가 꿈에 신인(神人)이 누전(樓殿)을 타고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속고승전』의 찬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법랑전」을 기술하다 보니, 법랑이 임신될 때의 태몽을 (법랑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법랑의 모친인) 유(劉)씨가 꿈에 신인(神人)이 누전(樓殿)을 타고 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랑의 모친은 그 꿈 속에서 신인이 누각의 건물을 타고 어머니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 바, 몽중(夢中)에서 한 말과 같이 몸이 빈 것 같았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깨고 나서도 사체(四體)가 가볍고 비어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법랑의 모친은 태몽에서의 체험과 동일한 체험을 깨고 나서도 계속했다. 이를 계기로 모친은 오신(五辛)의 잡미(雜味)를 다 끊는 불교적인 태교를 하고 있다.

이미 예고해 놓은 바, 법랑의 임신에 얹힌 태몽의 내용에 관해 음미해 보자.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삼론학에서는 공(空)사상에 철저화를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를 흔히 그 어떠한 미신도 배격하고 있는 “지혜 중심의 자비의 종교”라고도 하고 있거니와¹⁷⁾, 이 때의 지혜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공사상(空思想)의 실천적 체득이 바로 진정한 중도이며 지혜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되었거니와, 대승불교사에서 불세출의 인물 용수는 불타의 연기관(緣起觀)에 입각한 무아의, 즉 공(空)의 사상에 철저화를 기하여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불교학(中觀佛敎學)을 체계화하였으며, 삼론은 이 반야공관의 중관불교에서 기본논서인 『중론』과 『십이문론』 및 『백론』을 뜻하는 바, 여기에서는 무아도 무아이어야 한다는, 다시 말해 공(空)도 다시 공(空)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론은 무아의, 즉 공(空)의 사상에 철저화를 기하면서 방대한 『반야경』 계통의 불서들에 대한 깊은 탐구와 체험에서 도출된 저술들로, 모두 반야공관의 입장에서 일체의 그릇된 견해인 소위 희론(戲論)을 타파하고 진실한 중도의 정견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반야(般若, prajña)”는 지혜를 뜻하며, 공관(空觀)은 철저한 무아사상, 즉 철저한 공사상(空思想)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관(中觀)은 일체의 반립적인 극단적 사상 내지 관념을 모두 부정하여 건립한 철저한 중도사상을 가리킨다.¹⁸⁾ 한편, 위의 인용문 [3-A]에 등장하는 법랑을 임신할 때 되풀이하거나 법랑의 모친은 태몽에서 신인이 누각을 타고 자신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 꿈에서 몸이 빈 것 같았고, 깨고 나서도 사체(四體)가 가볍고 비어 평소와는 달랐다고 한다. 즉 태몽중의 체험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내용을 깊이 음미해 보면, 법랑은 공(空)을 상징하는 누각의 건물을 타고 입태한 신인이 된다. 그리고 태몽 이후에도 계속해서 몸이 가볍고 비었다고 하는 체험 또한 공(空)을 상징하는 누각의 건물을 타고 있는 법랑이 모친 내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랑의 임신기간은 모친의 내부에서 공(空)을 성숙시켜 공(空) 자체가 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전에서는 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의 맵고 자극이 심한 5신채(辛菜)는 날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증가시키고 익혀 먹으면 음심이 커진다고 하며, 선신은 멀리 떠나고 악신은 가까이 와서 오도한다고 하고, 목숨이 끝나서는 스스로 마왕의 권속이 되며 경복(慶福)이 다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바, 보리(菩提), 즉 지혜를 닦는 자는 영원히

17) ①中村元, 『原始佛敎の生活倫理(中村元選集 第15卷)』, (東京: 春秋社, 昭和53第3刷), 398-404쪽. ②박선영, 「불교와 평화교육」,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평화·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5), 80-84쪽.

18)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宗教敎育學研究》1, (서울: 韓國宗教敎育學會, 1995), 48-51쪽.

5신채를 끊어야 한다고 한다.¹⁹⁾ 이 점을 고려한다면, 법랑의 위와 같은 모태 내에서의 공(空)의 인간화는 모친의 5신채를 금하는 태교를 통해서 더욱 잘 진행되었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법랑은 숙세(宿世)부터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쌓아 와, 모태 내에서 공(空)의 육화(肉化)를 장양(長養)시켜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고, 당시의 불교계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출가의 동기와 불교의 수학과정

앞의 “1. 가계와 청소년시절”에서, 소시(少時)에 군사훈련을 경험하였고, 잠시 북벌에도 참가했던 무가적(武家的)인, 다시 말해 호전적이면서도 담대한 성향이 없지 않았던 법랑의 출가 동기는 이디에 있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잠시의 북벌과정에서 무기와 인간의 육체 그리고 인간이 지니는 욕심과 사악함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통해 불교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의 출가는 이러한 불교적 회심을 그 계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출가 후 그는 불교학이나 실천적 수행(修行)에 있어서 무엇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학습했는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자.

[3-B]: (법랑은) 양(梁)의 대통 2년 2월 2일에 청주(靑州)에서 입도(入道)하고, 양도(楊都)에 유학(遊學)하였으며, 대명사(大明寺)에 나아가 보지(寶誌)선사에게 여러 선법(禪法)을 받고 겸하여 이 절의 단율사(豢律師)의 강진(講津)에서 율(律)의 본문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 남간사(南澗寺)의 선사(仙師)로부터 『성론(成論)』을, 죽간사(竹澗寺)의 정공(靖公)에게서 『비담(毘曇)』을 수학했다. 당시에 명성은 경기(京畿)를 진동시켰고 신묘함은 학중(學衆)에 높았다. 때문에, “천구(天口)의 반려”²⁰⁾와 “장이(藏耳)”²¹⁾의 손입[寶]은 마음에 헤아리고 눈으로 보아 분주하게 다투지 않음이 없었다. 단, “취산(鷲山)의 묘법”²²⁾은 군창(群唱)하나 홍포는 드물었어도, 용수(龍樹)의 도풍(道風)은 종사(宗師)가 그치지 않았음은 앞서의 전기에 기록한 바이다.²³⁾

19) ① 「梵網經」 10下, 『大正藏』 24, 1002쪽 중단. ②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8, 『大正藏經』 19, 141쪽 하단.

20) “천구의 반려[天口之侶]”에서 “천구(天口)”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을 뜻한다.

21) “장이의 손입[藏耳之寶]”은 “장삼이(藏三耳)”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두 귀 이외에 또 하나의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장삼이(藏三耳)”를 “장삼아(藏三牙)”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와전이라 할 것이다.

22) “취산(鷲山)의 묘법”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즉 『법화경(法華經)』을 뜻한다. 이 『법화경』은 석존(釋尊)이 영취산(靈鷲山)에서 설한 경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하는 용어이다.

23) 「續高僧傳」 7, 釋法朗, 『大正藏』 50, 477쪽 중단, “(法朗) 以梁大通二年二月二日 於靑州入道遊學楊都 就大明寺寶誌禪師 受諸禪法 兼聽此寺澗律師講津律本文 又受業南澗寺仙師成論 竹澗寺靖公毘曇 當時響動京畿 神高學衆 所以 天口之侶 藏耳之寶 心計目覽 莫不奔競 但以鷲山妙法 群唱罕弘 龍樹道風 宗師不綴 前傳所紀”.

앞서의 인용문 [3-A]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랑은 잠시의 북벌참전 과정에서 불교적인 회심을 했던 바, 이는 그의 나이 21세(527) 때의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출가는 양(梁)의 대통(大通) 2년(528) 2월 2일에 강소성(江蘇省)의 청주(青州)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의 출가는 앞서의 회심이 있는 지, 길어야 약 1년 정도도 거의 안된다. 그 만큼 그의 출가에는 앞서의 회심이 크게 작용했다. 다시 말해, 그의 북벌에서의 회심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어 출가자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이러한 법랑이 출가한 후, 그의 불교교학 학습과 실천적 수행(修行)의 과정은 어떠했던가.

위의 인용문 [3-B]에 의하면, 법랑은 출가한 다음 양도(楊都)에 유학(遊學)하였으며, 당시의 여러 명찰에서 여러 학승 내지 고승들로부터 여러 선법(禪法)과 율문(律文) 및 『성론(成論)』과 『비담(毘曇)』을 수학하여 그 명성이 경기(京畿) 지역에서 자자했다 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성론(成論)』과 『비담(毘曇)』을 수학한 점이다. 북조의 장안에서 구마라집과 그의 직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른바 고삼론에서는, 주지하듯이 이 『성론』과 『비담』은 - 승랑에 연원한 삼론학에서는 『비담』은 물론이고 『성론』도 대승불교가 아니라고 하여 배격하지만 - 삼론학의 기초학으로 널리 읽혔다. 그래서 고삼론학에서는 성실학자가 바로 삼론학자이고 또 삼론학자가 바로 성실학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랑 당시 남조의 양도(楊都) 지역에서는 언변이 유창하고 귀동냥에 밝은 자들이 분주하게 마음에 헤아리고 눈으로 보아, 암암리에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곳의 불교계가 각자 불교의 교학연구와 강학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풍조를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단, 취산(鷲山)의 묘법은 군창(群唱)하나 흥포는 드물었어도”라는 기록을 통하여, 『법화경』이 널리 회자되고는 있었으나 아직 크게 성황을 이루고 있지는 못했던 실정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천태종의 실태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용수(龍樹)의 도풍(道風), 즉 용수에 시원(始源)한 승랑 이래의 삼론학은 종사(宗師)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제2조인 승전 문하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법랑을 위시하여 4철(哲)이라 할 소위 전공사우(詮公四友)는 모두 그들의 스승인 승전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교육받았는가 하는 것은 앞서의 인용문 [2]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한 바 있다.

3. 승전과의 만남과 흥황사에서의 강론

이미 법랑의 스승인 제2조 승전(僧詮)은 광범하고 깊은 학문적인 경향과 더불어 선적(禪的)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논한 바 있다. 과연 법랑에게 있어서, 승전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승전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주로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법

량의 흥황사(興皇寺) 강론은 어떠했으며 그 의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의 전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3-C]: 섭산(攝山)의 낭공(朗公=法朗)은 아득한 것을 풀고 미묘한 것을 헤아려 세상이 가상(嘉尙)하는 바로, 사람의 대(代)가 길이 가더라도 그 뒤를 이음은 오히려 보존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산의 지관사(止觀寺) 승전법사에게서 『지론(智論)』, 『중론』, 『백론』, 『십이문론』과 아울러 『화엄』, 『대품(大品)』 등의 경전을 수학했으며, 여기에서 곧 장부(藏部)의 전적들을 통괄하여 심오하고 그윽하며 미묘함을 탐구하였다. 이치에 있어서는 정밀함과 새로움을 토(吐)했고, 말은 화관(華冠)을 머금었으며, 온 힘을 다하여 군세게 탐구하여 과업을 몸과 마음에 돈독하게 하였다. “스승이 뛰어나면 공은 갑질이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된다. 진(陳)의 무제 영정(永定) 2년 11월에 칙(勅)을 받들고 수도에 들어가 흥황사에 머물러 강론을 이어 갔다. 때문에, 『화엄』과 『대품』 및 사론(四論)의 글과 말은 지난날의 현철이 아직 말하지 않은 것과 뒷날의 후진이 덜어내고 간략히 한 바는, 법랑이 다 의리(義理)를 들어 지적하였으며 언사(言詞)의 운치를 밝혀 냈다. 그러므로, 말의 기운은 빼어나고 시원하며, 맑고 온화함은 쉽게 통효(通曉)하도록 할 수 있었다. 항상 무리가 천여명으로 복덕과 지혜가 가득 차고 넓었다. 그러므로, 청중이 구름처럼 모여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고, 법의(法衣)는 1000벌이나 항상 쌓이고 흩어졌다. 한 번 자리에 오를 때마다 옷을 한 벌씩 바꾸고 경론을 앞에 놓고 천명하기 각각 20여편이었다. 25년이나 물 흐르듯 적서 끊이지 않았다. 그 동안 사부(四部)를 일으키고 십여 양궁(兩宮)에 법륜의 빛남이 당시에 짝할 자 없었다.²⁴⁾

위의 인용문 [3-C]에서 『속고승전』의 찬자 도선(道宣)은 법랑을 평하여 “아득한 것을 풀고 미묘한 것을 헤아려 세상이 가상(嘉尙)하는 바로, 사람의 대(代)가 길이 가더라도 그 뒤를 이음은 오히려 보존될 것이다”라고 평하면서, 법랑이 이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학문 내지 학풍은 영원히 계승될 것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또한 앞서의 인용문 [2]에서도 확인했고, 또 위의 인용문 [3-C]에서 다시 확인되듯이, 법랑은 삼론학의 소의경론(所依經論)과 『화엄경』을 모두 승전에게서 수학했는 바, 이미 언급했듯이, 이는 초조인 승량 이래의 전통이기도 했다.²⁵⁾ 즉, 법랑은 출가 후 여러 곳에서 불교의 전적을 두루 수학하여 섭렵하고 나서, 섭산의 승량을 이은 제2조인 섭산의 지관사(止觀寺) 승전에게서 삼론학의 경론들을 본격적으로 수학하고 탐구한다. 그의 탐구는 “장부(藏部)의 전적들

24) 위의 글, 477쪽 중단-하단. “攝山朗公 解玄測微 世所嘉賞 人代長往 嗣續猶存 乃於此山 止觀寺 僧詮法師 滄受智度中百十二門論 並花嚴大品等經 於即彌綸藏部 探蹟幽微 義吐精新 詞含華冠 專門強學 課篇彤心 可謂師逸功倍 於斯爲證 永定二年十一月 奉勅入京 住興皇寺 鎮講相續 所以 花嚴大品四論文言 往哲所未談 後進所損略 法朗皆指摘義理 微發詞致 故能言氣挺暢 清穆易曉 常衆千餘 福慧彌廣 所以 清侶雲會 揮汗屈膝 法衣千領 積散恒結 每一上座 輒易一衣 前經論各二十餘篇 二十五載 流潤不絕 其間興樹四部 兩宮法輪之華 當時莫偶”.

25) 「高僧傳」8, 釋法度, 『大正藏』50, 380쪽 하단.

을 통괄하여 심오하고 그윽하며 미묘함을 탐구하였다. 이치에 있어서는 정밀함과 새로움을 토(吐)했고, 말은 화관(華冠)을 머금었으며, 온 힘을 다하여 굳세게 탐구하여 과업을 몸과 마음에 돈독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곧 훌륭한 스승 승전법사의 지도를 받아 학문적으로 대성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 『속고승전』의 찬자는 이러한 점에 대해 “스승이 훌륭하면 공은 갑절이나 된다”고 하는 말의 증거로 특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앞서의 인용문 [2]에서 확인되듯이 선적(禪的)인 실천의 차원에서 학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깨우치고 승전 스스로도 선적(禪的)인 실천을 몸소 보여 주기도 했다. 법랑을 위시한 승전문하의 4철(哲)은 승전으로부터 이런 깨우침과 승전 자신이 보여 준 정혜(定慧)의 수습(修習)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음직 하다. 그리고, 역시 앞서의 인용문 [2]에는, 뒤에 4공(公), 즉 법랑, 혜포, 지변, 혜용의 이른바 전공사우(詮公四友)가 승전에게 가서 삼업(三業)을 이어 받았으며, 이에 처음에는 간섭하여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자 부연하였다고 하는 바, 이 부연의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언급한 선적(禪的)인 실천의 차원에서 학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깨우침이었다. 그렇다면, 제2조인 승전과 그의 제자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법랑은, 이미 확인했듯이, 출가 후 여러 곳에서 불교의 전적을 광범하게 수학한 다음, 언변이나 귀동냥으로 강론의 명성을 다투는 차원의 탐구가 아니라 진정한 불법의 오묘한 이치를 알기 위하여, 다시 말해 진실한 불법의 구도자로서, 당시 용수의 반야공관의 중관불교를 승랑을 통해 계승하여 그 학문과 인품의 훌륭함이 널리 알려진 승전에게 가서 수학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랑의 스승 승전은 『속고승전』의 찬자가 법랑의 학문적 대성을 “스승이 훌륭하면 공은 갑절이나 된다”고 하는 말의 증거로 특기하고 있을 정도로 학문의 지도 내지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과 실천을 지니고 있었던 고승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법랑을 위시하여 이른바 전공사우(詮公四友)가 승전에게 가서 삼업(三業)을 이어 받았으며, 이에 처음에는 간섭하여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 좀 전에 언급했거니와, 선적(禪的)인 실천의 차원에서 학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깨우쳤다는 것도 쉽게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암암리에 어떤 내용의 학습에 있어서 준비성 내지 적시성(適時性)에 관한 고려 내지 지혜가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법랑은 이와 같은 스승 승전의 탁월한 지도력의 도움을 받아 학문적으로 대성한다. 그리하여 법랑은 장부(藏部)의 전적들을 통괄하여 심오하고 그윽하며 미묘함을 탐구하고, 이치에 정밀함과 새로움을 밝혔으며, 논변에는 화관(華冠)을 머금은 듯하고, 전심전력 굳세게 탐구하여 스스로 과업을 몸과 마음에 돈독하게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탁월한 학문적 넓이와 깊이를 갖추고 그 학문 내지 진리를 널리 전하고자 열심이었던 스승 승전과, 학문적 소양과 구도적

향학열을 지닌 제자 법랑과의 만남은 바로 교육을 매개로 한 하나의 실존적인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찍이 실존철학에 기초한 교육철학에는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Begegnung geht vor Bildung)”라는 명제가 있거니와²⁶⁾, 승전은 법랑을 위시한 4철(哲)을 만나서 - 이 4철(哲) 가운데 혜포와 지변 및 혜용과 승전과의 만남은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겠거니와 -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게 되었고, 법랑을 위시한 4철(哲)들 또한 승전을 만남에 따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존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하겠다.

한편, 인용문 [3-C]에서는 법랑이 진(陳) 무제의 칙(勅)을 받고 경사(京師)에 들어가 홍황사에 머물면서 강론을 이어갔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엄』과 『대품』 및 사론(四論)에 관하여 그가 어떤 점에서 전인미답의 경지를 이루었고, 또 뒷날의 후진이 무엇을 간략하게 한 것인가를 의리(義理)를 들어 지적하는가 하면, 언사(言詞)에 함축된 운치를 밝혀 냈다. 그러므로 언설의 기운은 빼어나고 시원하며, 맑고 온화함은 쉽게 통효(通曉)하도록 할 수 있었다. 청중이 항상 천여명으로 복덕과 지혜가 가득 차고 넓었다고 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법랑은 다른 사형제(師兄弟)들과는 독특한 점이 있었다. 법랑은 그의 사형제들 가운데 논쟁에 있어서 가장 강한 역량과 풍모를 전하고 있다.²⁷⁾ 특히 지변과는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3-D]: 그러나 변공(辯公)은 승업(勝業)이 탁월하고 청명하여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했다. 그러므로, 그 강창(講唱)은 겸하여 선중(禪衆)을 부존(扶存)하였다. 화락(和樂)한 것 또한 전공(詮公)이 돈독하게 권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의체(義體)는 때로는 법랑과 달랐다. 그러므로 홍황사의 좌중에서는 중가(中假)의 꾸밈음을 배척하였다²⁸⁾

위의 인용문 [3-D]는 제3조인 홍황사의 법랑이 그의 사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지변과는 서로 다른 풍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랑이 홍황사에서 강론하고 있을 때, 홍황사의 좌중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지변의 풍모를, 그것도 법랑 자신과 더불어 공동의 스승인 승전이 돈독하게 권한 화락한 풍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변의 이러한 풍모를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 지변을 중가사(中假師)라고 칭했다 한다(平井俊榮,

26) ①Bollnow, Otto Friedrich,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Stuttgart : W. Kohlhammer Verlag, 1959), VI.. ②박선영, 중등학교의 인성교육과 교원양성, 《教育問題研究》12, (서울 : 東國大學校 教育問題研究院, 1997), 12-13쪽.

27) 「續高僧傳」7, 釋法朗, 『大正藏』50, 477쪽 하단.

28) 위의 글, 477쪽 하단. “然辯公 勝業清明 定慧兩舉 故其講唱 兼存禪衆 抑亦詮公之篤厲也 然其義體 時與朗違 故使與皇座中 排斥中假之諍”.

1976: 279). 더욱이 법랑의 수제자로 중국의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대성자인 제4조 길장(吉藏, 549-623)은 그의 스승인 법랑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중가사(中假師)는 가작(假作)과 가해(假解)를 들으면 또한 모름지기 이 가(假)를 논파했어야만 했다.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가사의 죄가 무거워 영원히 부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다”²⁹⁾라고 극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변은 정혜(定慧)의 쌍수(雙修)를 실천적 수행으로 하고 화락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법랑은 주로 파사(破邪)의 학문적 추구에 열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호전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속고승전』의 찬자 도선(道宣)도 이러한 점에 주목한 듯, 지변은 “그 의체(義體)에 있어서 때로는 법랑과 달랐다”³⁰⁾고 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어려서부터 무가적(武家的)인, 다시 말해 호전적인 성정이 있어 학풍에 있어서도 이러한 “파사(破邪)”³¹⁾에 전심한 데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소개한 바 있거니와, 그를 당시에 “홍황사의 옆드린 호랑이 법랑(興皇伏虎朗)”이라고도 했던 바, 이러한 별명이 그의 위와 같은 성정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³²⁾, 당시 위세를 과시하고 있던 성실학과(成實學派)와 서로 길항(拮抗)의 관계에 있었던 바, 경사(京師)에서 삼론의 해명과 홍포에 몸을 바치는 것이 법랑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의 역사적 사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언급된 바 있거니와, 승전의 가르침 가운데 “깊이 법을 즐기는 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섭산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그는 이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진서(陳書)』의 「부재전(傅縡傳)」에 의하면, 당시의 대심(大心) 고법사(高法師)가 『무쟁론(無諍論)』을 지어, “섭산대사는 권유하고 교화하여 인도함에 이와 같지 않았다. 즉 무쟁(無諍)을 익히고 행한 자이다”³³⁾라고 승랑을 찬양하면서도, 법랑의 홍황사일파가 “모든 법사들을 두루 혈뜰어 여러 학문을 비난하고 배척하며, 중도를 논하면서 편벽된 마음을 고집하고, 망회(忘懷)를 말하면서 혼자 홀륭함을 다룬다. 학문을 거슬러 자주 논하여 다시 원수와 적이 되고, 원수와 적이 이미 얹히어서 다툼과 싸움이 크게

29) 『中觀論疏』 2, 『大正藏』 42, 25쪽 중단-하단, “又中假師 聞假作假解 亦須破此假 師云 中假師罪重 永不見佛”.

30) 『續高僧傳』 7, 釋法朗, 『大正藏』 50, 477쪽 하단, “辯 --- 然其義體 時與朗違”.

31) 잘 알려져 있듯이, 삼론학은 반야공관에 기초한 중관불교의 입장에서 파사현정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삼론의 핵심 논서인 용수의 『중론』과 『십이문론』 및 그의 제자인 제바의 『백론』 가운데, 앞의 『중론』과 『십이문론』은 “반야공관의 중관불교”의 올바름을 해명 내지 천명하고 있는 “현정(顯正)”의 논서라고 한다면, 뒤의 『백론』은 인도에 있어 온 여러 철학 내지 이교도들의 사상이나 관념의 그릇됨을 해명 내지 천명하는 “파사(破邪)”의 논서이다.

32) 平井俊榮, 앞의 글, 276쪽.

33) 『陳書』 30, 列傳24, 傅縡, “攝山大師 誘進化導 則不如此 卽習行於無諍者也”.

일어난다. 이러한 마음이 죄업을 이루어 그 죄업이 그치지 않는다”³⁴⁾고 비난하는가 하면, “인도하고 깨우치는 덕은 벌써 지난 일이고, 순박하고 한결같은 기풍은 이미 경박하게 되었다. 승리를 다투는 마음과 아침하고 혈뜰는 왜곡이 여기에서 성행한 것이다”³⁵⁾라고 극언하고 있다. 한편, 당시에 박학과 문장 그리고 곧은 인품으로 명성이 높았던 부제(傅綽)는 불교를 독신(篤信)하고 있었던 바, 홍황사의 혜랑법사(惠朗法師)에게 삼론을 수학하여 그 학문에 더할 수 없을 정도로 통효(通曉)했던 자이다.³⁶⁾ 그의 전기 속에는 위의 대심 고법사의 『무쟁론』을 비판하면서 홍황사의 입장을 밝히고 옹호하는 『명도론(明道論)』을 지었는 바, 『무쟁론』에 대한 『명도론』의 반박 내지 답변이 있어 당시의 법랑계열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난의 내용에 관한 성격의 일단을 포착할 수 있다.³⁷⁾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은, 당시의 홍황사 법랑계통이 전투적인 논쟁을 자주 하는 것으로 불교계나 사회의 지성계 일각에는 비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법랑이 진(陳)의 영정(永定) 2년(558)에 무제의 칙(勅)을 받들어 경사(京師)의 홍황사에 머물러 25년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삼론학을 강론한 것은 승량을 연원으로 하는 신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 것일까. 수도에서 장기간에 걸친 성공적인 강론을 통해, 당시 서로 길항(拮抗)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여전하게 위세를 과시하고 있던 성실학파를 효과적으로 논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삼론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의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을 널리 인식시키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 점은 전적으로 법랑의 공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 제2조 승전에게는 삼론학파적인 학문적 경향과 선종적인 실천적 수행의 두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앞의 삼론학파적인 학문적 경향은 법랑으로 대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앞서의 인용문 [3-B]에서 확인했듯이, 법랑은 승전 문하에 오기 전에 대명사(大明寺)의 보지(寶誌)선사에게 여러 선법(禪法)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법랑이 가야 할 길은 삼론학파적인 학문의 방향이었다고 여겨진다. 소질이랄까 성향이랄까 하는 면에서 보면, 법랑이야말로 승전 문하에서 논쟁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나 당시의 역사적인 사회적 풍조의 영향으로 무가적인, 즉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이 점이야말로 당시에 경쟁관계에 있던 성실학파를 논파하는 데에 승전문하에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중국

34) 위의 글. “歷毀諸師 非斥衆學 論中道而執偏心 語忘懷而競獨勝 方學數論 更爲難敵 難敵既構 諍鬪大生 以此之心 而成罪業 罪業不止”.

35) 위의 글. “導悟之德既往 純一之風已澆 競勝之心 阿毀之曲 盛於茲矣”.

36) 위의 글.

37) 위의 글.

불교사에서 삼론을 대성하여 독립된 하나의 학파 내지 종파를 확립함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4조 길장(吉藏)은 방대한 저술들 속에서 자신의 교의를 말할 때 자주 법랑의 발언을 빌려서 논하고 있는 바, 이는 길장이 홍황사에서 법랑이 행한 강석(講席)에서 자수(諮受)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이 점 또한 중국불교사에서 승량을 연원으로 하는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공헌이며 의의라고 하겠다.

IV. 제2조 승전 및 법랑의 학풍과 수행의 경향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의 관점에서 불교승려들의 중국유학 실태를 검토하여, 이 구법유학의 한국교육사 및 한중 사이의 정치사적 내지 문화교류사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고구려의 승량은 중국에 구법유학을 한 선구자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의 연구는, 고구려 출신 승량에 연원한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초조인 승량의 계승자인 승전과 그의 수제자 법랑을 중심으로, 제2기의 학풍 내지 가풍의 일면을 확인하고 그 의의를 밝히려고 했다. 제3조인 법랑은 승량의 학풍을 제2조 승전에게서 계승했다. 그러나 승전에게는 이러한 학풍과 함께 선적(禪的)인 경향도 있었으나, 법랑은 승전의 학문적인 면을 대표하는 계승자이었다.

그리고, 승전과 법랑의 만남이 승량을 연원으로 하는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차지하는 의의 및 그 교육학적 의미도 밝히려 했다. 법랑은 대대로 고위관직을 지낸 명문의 후예이며, 당시 역사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풍조에 영향받아 무가적(武家的)인, 그래서 도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법랑은 출가 후 여러 곳에서 여러 경론과 율을 수학한 뒤에 승전을 만나 삼론학을 대성했다. 그의 학문은 해박하고 예리한 분석력과 심오한 사색의 능력을 지녀, 승전의 문하에서는 논쟁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다.

법랑은 진(陳) 무제의 칙을 받고 수도 홍황사에서 25년의 장기간에 걸쳐 삼론을 강론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당시에 위세를 과시하면서 삼론학과 긴장관계에 있었던 성실학파를 성공적으로 논파하여 삼론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을 널리 인식하게 했다. 한편, 법랑의 도전적인 성향과 탁월한 논쟁의 능력은, 당시의 사회나 불교계 일각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헌을 함에 있어서는 그의 도전적인 성향이 오히려 장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하겠다. 또한 이 홍황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강론을 통하여 고구려 출신 승량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승량 이래의 학설들을 집대성한 길장(吉藏)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길장에게 승량을 연원으로 하는 삼론학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독립된 학파 내지 종파를 확립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 참 고 문 헌 >

※여기에서 『大正藏』은 『大正新修大藏經』을 가리킨다.

「高僧傳」, 『大正藏』 第50卷.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正藏』 第19卷.

「梵網經」, 『大正藏』 第24卷.

「法華玄義釋籤」, 『大正藏』 第33卷.

「續高僧傳」, 『大正藏』 第50卷.

「中觀論疏」, 『大正藏』 第42卷.

『陳書』.

박선영(1995),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宗教教育學研究》 1, 서울 : 韓國宗教教育學會.

박선영(1995), 「불교와 평화교육」,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평화·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박선영(1997), 중등학교의 인성교육과 교원양성, 《教育問題研究》 12, 서울 : 東國大學校 教育問題研究院.

박선영(1998), 「제2장 종교와 인격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아름다운 세상.

朴先榮(1999), 「고구려 僧朗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師承관계」, 『田雲德總務院長 華甲紀念佛敎學論叢』.

박선영(1999),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량시대 접산 서하사의 가풍, 《宗教教育學研究》 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中村 元(1978), 『原始佛敎の生活倫理(中村元選集 第15卷)』, 東京: 春秋社.

平井俊榮(1976), 『中國般若思想史研究 - 吉藏と三論學派 - 』, 東京: 春秋社.

Bollnow, Otto Friedrich(1959),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